

민주금속연맹의 노동교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1. 들어가는 말

기업별 노동조합을 극복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을 타파하려는 활동은 기존의 활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교육활동도 그 예외는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를 한 방향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노동조합 운동에 주목한다면 무엇보다도 개별 단위 사업장의 활동을 지양하고 연맹 중심의 활동 강화를 통해 산별 노조의 토대를 쌓아 나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96년 11월부터 97년 상반기 동안 실시되었던 금속연맹의 노동교실은 주목을 끌만 하다.

그 동안 노동교실은 1회적인 교육을 극복하는 체계적인 교육 방안의 하나로 많은 노동조합에서 실시되어왔고 '학교식' 교육방법이라는 형식으로 노동자의 사회·정치적 의식 향상에 큰 도움을 주어왔다. 그러나 단위사업장의 현안에 밀려 또는 집행부 교체에 따라 지속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외적으로 병원노련 서울지부 노동교실처럼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곳도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금속연맹의 노동교실은 단위사업장의 틀을 뛰어 넘어 연맹이 주관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점,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단위 사업장의 간부가 아닌 연맹과 향후 산별노조를 이끌어 갈 간부와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기한다.

2. 노동교실은 왜 추진되었나 ?

금속연맹의 노동교실 사업은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제기 된 사업방향에서 출발한다. 창립대회에서 “연맹을 이끌어 갈 50명의 지도역량, 중앙과 단위노조를 이어주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집행해 갈 500명의 지역간부역량, 연맹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 설 5,000명의 일선간부” 등 “금속간부 5,500명을 확보한다”는 사업 방향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사업방향에 따라 교육선전실 사업계획으로 상설 교육기관인 ‘금속노동자 학교’를 장기적으로 설립하고 당면과제로는 주2회 7주 교육 형태의 노동교실을 진행 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절대 부족한 상근인력과 창립원년의 사정까지 겹쳐 이 사업을 다 수행 할 수는 없었고 하반기 들어서서 ‘한 발이 아니던 반발이라도 내딛어야 한다’는 각오로 상설 노동자학교의 첫 걸음인 ‘노동교실’을 개설하여 555명을 교육하기로 하였다.

노동교실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간부를 양성하려는 이런 계획은 단병호 위원장의 노동교실 취지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동안 단위노조와 지역 전국단위의 조직에서 간부 양성을 위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많은 간부들이 양성되었고, 그들이 노동운동의 발전에 주춧돌이 되었던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이 중장기 전망 속에서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한다는 계획 속에서 추진되기보다는 대부분이 분야별 사안별 교육이라는 한계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조직의 통일성과 집중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도 기대만큼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제정과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었던 것에 비해 얻은 성과는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맹의 노동교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설 노동자학교를 설립하여 금속연맹과 한국노동운동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개설되었습니다.”

3. 노동교실의 추진과정

96년 9월 14~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학교의 1단계 사업으로 노동교실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이후 10월초부터 노동교실의 경험이 있는 연맹과 교육단체에 대한 기초 조사사업을 거친 후 본격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연맹 중앙 교육선전실의 국장과 교육부장, 서부경남과 울산지부 교육담당자 그리고 임원 1인과 사무차장이 노동교실 준비모임팀으로 구성되어 내용 준비와 조직화 일정 등을 조정하고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

갔다. 당시 모임에서 확정 된 교실의 위상, 교육 대상, 진행방식 등은 다음과 같다.

교실의 위상

노동교실은 연맹이 중장기 과제로 추진중인 '노동자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초보간부 교육사업의 위치를 갖는다. 노동교실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상설교육기관인 '노동자학교'를 준비하도록 하며 노동교실은 이후 완성된 노동자학교 교육과정에서 초보간부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노동교실을 통해 금속연맹을 떠날칠 간부를 양성하며 노동교실 졸업생은 향후 중급, 고급의 단계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실의 진행 방식

12개 지부의 노동교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부의 명확한 역할분담, 세부적인 교육진행방식의 확립과 통일성이 요구되었다. 연맹 중앙은 노동교실 강의 내용과 강사, 입학·졸업자의 자격 등을 관장하며, 지부는 교육생을 조직하고 교실의 진행을 책임진다. 교육 실시의 주관은 각 지역지부가 하기로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노조에서도 노동교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전체적인 교육 흐름은 8개의 강좌와 입학식·졸업식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교육기간은 1주일에 2개 강의를 진행하여 한 달에 끝내기로 하였다. 하루의 교육 흐름은 교육시작전의 출석점검과 노래 배우기 (20분) → 강의와 질의응답 (100분~120분) → 과제물 부여 및 제출 → 뒤풀이 등으로 평균 3~4시간을 예정하였다. 두 번 이상 결석하는 교육생은 졸업할 수 없으며 한번 결석에 대해서도 이를 대체하는 과제를 제출해야 졸업할 수 있다. 교대근무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두 번 이상 결석한 사람은 다른 지부에서 실시하는 해당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실의 재정

노동교실의 재정은 연맹 중앙에서 편성해 놓은 '1기 노동교실' 예산 1천만 원과 교육생 참가비 1천 8백만원(1인당 3만원 기준으로 600명을 예상한다)등 총 2천 8백만 원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출은 크게 교육홍보비, 자료제작비, 지부운영비, 강사비등으로 항목을 잡고 지부별 참가자 교육비 전액은 중앙으로 모아 중앙에서 일체의 운영비 등 필요 예산을 지출하여 지부간 편차를 줄여 전체 지부가 안정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도록 하였다. 단 마지막 수련회는 교육생 참가비를 받아 지부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교실의 교육 참가자

연맹이 주관하는 첫 교실사업으로 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대상이 교실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도부부터 앞장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부마다 지부장을 포함한 50명, 전체로 보면 연맹 위원장을 포함한 600명이 1차로 노동교실에 입학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합원의 교육 참여는 단위노조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있고 노조운동 일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교육 내용

전체 교육과정을 '노동운동 일반에 대한 기본 교육',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건설 방안', '연맹의 현황과 실천계획을 함께 이해하는 교육' 등 3부분으로 나누고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표 1〉 노동교실의 주제와 내용

순서	주 제	내 용
1	다시 보는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에 걸친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취향을 더듬어 보며 노동운동이 겪어온 시대 조건과 어우러져 고강도 참여의 흐름을 타면서도 의연하게 발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2	한국사회와 노동자	재벌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의 정치구조를 살펴보고 노동자의 지위와 기업규모 별 차별별·성별·직종별 격차를 보이는 노동자 내부 구성을 정리하고 시대 속에서 노동자의 사명을 알아본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노동운동의 전략과제도 따오른 정치세력화의 올바른 길을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난 시절 정치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정리한다.
4	이것이 산별노조다	기업별 노조를 발전시키면 인위니? 왜 꼭 산별노조를 만들어야 하나? 산별노조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며, 운영의 기본원리와 일상활동, 임·단협 등 주요 사업 방식, 그밖에 궁금한 점을 밝힌다.
5	산별노조 건설·나라별 사례	실패한 사례 미국, 거센 안틸 길 일본의 사례, 공공이 씬어 불만한 브라질과 남아공 사례, 나름의 정점을 지닌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 등 외국의 경험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원칙을 배운다.
6	산별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설 추진세력은 있는가? 공동투쟁을 이끌어낼 공동요구와 공동교섭의 가능성은 어떤가? 기업별 노조의 구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지 짚어본다.
7	금속연맹·현황과 과제	산별노조를 구호하 여난 조직목표로 내건 금속연맹 창립 원년을 평가하고 중앙에서 지부의 단위노조까지의 조직운영의 방향에 대해 짚어 본다.
8	산별 시대·간부의 자세	어리는 산별노조를 향하고 있으나 발목은 기업별 노조에 잡혀있는 현실을 헤쳐 나가기려면 간부들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정리 해 본다.

강사

강사는 금속연맹에서 일하는 지도, 집행 역량을 우선으로 하고 상급단체, 민주노조운

동 안팎의 교육역량을 결합하였다. 일정한 짧은 기간에 노동교실이 전체 12개 지부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됨으로 한 강의당 강사를 4명 이상으로 하고 강사는 중앙에서 확정 한 사람 가운데 각 지부 의견을 종합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노동교실의 진행과정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 공세가 노골화되던 1996년 11월, 금속연맹의 제1기 노동교실은 첫 걸음을 내딛었다. 11월 서부경남 지부등 6개 지부에서 63개 노동조합 간부 234명이 입학하면서 시작된 노동교실은 97년 8월말까지 총 94개 노조 818명이 입학하여 532명이 졸업하였으며 구미와 부천시흥지부는 97년 10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이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처음 계획한 대로 12개 지부 모두 교육을 마무리하였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라중공업, 대우중공업, 영창약기노조 등 5개 대기업노조는 공장별로 노동교실을 유치하여 실시하였다.

〈표 2〉 1기 노동교실 진행 현황

지부·단위노조	진행 일정	입학	졸업
서부경남	96.11~96.12월 주2회	19개 노조 44명	33명
울산	96.11~97.5월 주2회	5개 노조 32명	5명
포항	96.11~96.12월 주2회	5개 노조 42명	29명
광주전남	96.11~97.8월 주2회	6개 노조 29명	미졸업
인천	96.11~96.12월 주2회	15개 노조 40명	28명
부산양산	96.11~97.1월 주2회	10개 노조 46명	26명
대구	97.3~97.4월 주2회	5개 노조 40명	27명
충청	97.3~97.4월 주2회	7개 노조 40명	20명
서울	97.3~97.4월 주2회	9개 노조 35명	25명
경기남부	97.3~97.4월 주2회	13개 노조 30명	10명
대우중공업 노조	97.3~97.4월	170명	144명
한라중공업 노조	97.3~97.4월	52명	28명
대우조선 노조	97.3월	61명	48명
현대중공업 노조	97.5월	52명	34명
영창약기 노조	97년 7월	61명	75명
부천시흥지부	97년 10월	교육 실시 중	
구미지부	97년 10월	교육 실시 중	
12개 지부 6개노조	96.11~97.10월까지	94개 노조 818명	532명

노동교실은 노조 간부로서 알아야 할 '노동운동 일반에 대한 이해'와 '산별노조'를 주

제로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동교실의 장점은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학교식 교육운영'을 꼽을 수 있다. 연맹 중앙이 통일적으로 집행 한 1기 노동교실은 주제에 대한 공통 강의안과 교재 제작을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내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연맹 중앙은 주제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고 대표 교안을 교재로 일괄 제작하고 교육담당자 수련회를 통해 시범강의와 과제물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노동교실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부의 조건과 운영 주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들어왔다. 중앙은 통일적인 교육 집행을 위해 교장(위원장)-운영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교육선전국장)-지부실무책임자 라는 조직 체계를 꾸렸으나 실제 노동교실의 운영은 지부나 단위사업장에 맡겨지면서 세부적인 교육 운영과 진행에 차이를 드러냈다.

이중 '학교식 교육'이라는 노동교실의 운영 방법을 잘 실현한 곳으로는 인천지부를 꼽을 수 있다. 인천지부는 노동교실을 준비하면서 지부의 교육부장을 중심으로 3인의 준비팀을 꾸려 노동교실 전반의 준비와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기획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생에게 다가갔다. 조직적이고 노동자의 규율이 살아 있는 체계적인 학교식 교육을 위해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교육생의 참가 규율을 결정하고 학생회장을 뽑아 자율적인 교실운영방안을 확립하였다. 또한 교육 분위기를 흐리는 휴대폰과 삐삐의 사용을 금지하고 출·결석 사항을 대자보에 그래프로 표시하여 교육생의 관심과 주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교육장을 학교 교실처럼 꾸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였다. 교탁보다 만들고 꽃도 준비하여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교육받을 환경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세부적인 교육준비는 구체적인 교육진행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표현되었다. 딱딱한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에 교육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시작 전에 참가 노조별 식전 행사(앞풀이)를 준비하도록 하여(노동가 및 울동 배우기를 통해) 노동에 지친 몸을 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형식적인 분반토론이 아니라 4차례의 조별 뒤풀이 및 개 조가 함께 하는 합동 뒤풀이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교육비 중에서 조당 10,000원씩 공식적으로 지원하여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조직하였다. 또한 교육 진행 중에 퀴즈대회를 통해 이전에 배운 교육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예습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인천 지부는 교육준비팀의 세부적인 준비 그리고 교육생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총파업 준비라는 긴박한 현장 상황 속에서도 40명의 교육입학생 중 28명이 졸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교육이 마무리 된 후 교실 졸업생들은 동문회를 구성하여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부가 이런 좋은 조건에서 노동교실을 진행 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지부에 상근 담당자는 한 두명이어서 담당자의 역할은 교육, 조직, 선전, 총부 등

지부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로 교육사업에만 집중 할 수 없었다. 또한 교육 기간이 총파업 기간에 집중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가중되었다. 울산과 광주·전남 지부의 경우 노동법 총파업으로 '임시방학(?)'이 실시되고 총파업 후유증과 단사 임·단협과 맞물리면서 96년에 시작한 교육이 97년 하반기에 끝나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 또한 충청 지부의 경우 사업장이 지역에 집중되지 않은 관계로 교육생이 교육장에 오기 위해서는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쓴약이 몸에 좋다'고 힘있게 마무리 한 교육은 97년 공동교섭의 밑바탕을 이루었고 이후 연맹으로의 사업 집중이라는 성과로 귀결되었다.

노동교실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교육 장소의 확보였다. 단위사업장의 경우는 교육 시간이 할애되거나 교육장소가 쉽게 해결 된 반면 대부분의 지부의 경우 안정적인 장소 확보가 어려웠다. 서부·경남지부는 창원에서 교육장소를 구하지 못해 교육생이 교육장에 집결하는데 평균 1시간 이상이 걸렸고 이러한 원인으로 교육이 끝난 후 뒤돌이는 조직할 수 없었다. 충청지부의 경우도 중간에 교육장소가 변경되는 혼란이 있었다.

한편 교육생에게 전체적으로 부과 된 과세물은 처음 의도한 목표와 다르게 교육생에게 악용되기도 하였다. 부산 등 몇 개 지부에서는 과세물이 처음 목표 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많은 지부에서는 과세물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었다.(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과세물의 결과물이 똑같은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과세물을 소개하면 다음페이지의 표와 같다.

4. 평가에 대신하여

금속연맹의 노동교실은 그 동안 단위 사업장 별로 진행되었던 노동교육의 고정된 틀을 뛰어넘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된다. 그간 연맹에서 진행하였던 대부분의 교육은 '연맹의 강화와 발전'에 주안점이 두어지기보다는 연맹 산하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물론 연맹 강화와 산하 조직의 강화라는 목표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러한 결과 많은 교육이 수행되었지만 교육 성과가 연맹으로 모아지고 못하고 사업장 단위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이번 노동교실은 교육의 목표를 '단위 사업장의 간부 양성'이라는 목표에 맞추어지지 않고 연맹과 향후 건설 될 금속 노조의 간부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됨으로써 교육 내용과 사업의 집중성을 가져 왔다. 또한 연맹이 노동교실을 통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조직원 전체에게 교육 기회가 주어졌다. 그 동안 같은 연맹의 조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임금격차만큼이나 교육에 있어

주 제	과 제 물
다시 보는 한국노동운동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태일 열사 분신이후 노동운동의 7가지 특징을 교재로 참고로 인략하게 정리하시오 2)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배신하고 탄압해 온 주요 시계를 최근까지 간단히 적시오 3) 민주노총의 건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앞으로 가장 힘주어 해야 할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적시오.
한국사회와 노동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벌중심의 경제에 대하여 30대 재벌과 5대재벌의 비중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재벌경제의 문제점을 교재를 참조하여 적시오 2) 1980년대 노동자, 농어민, 비동자영업, 신중간, 주변무산자, 자본가층이 각각 몇%를 차지하는지 교재를 참고해 쓰고, 1980년, 1985년, 1990년, 1994년을 기준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몇 %에 머물렀는지 적시오. . 3) 한국의 사회, 정치에서 노동자의 영향력이 미약한 원인을 두 가지로 적고, 이를 극복 할 방안 2가지를 적시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왜 필요하지 적시오. 2) 지금까지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들이 왜 실패했거나 오히려 노동운동에 해악을 끼치게 된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적시오. 3)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책임질 중심세력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인지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때도를 것인지 적시오.
이것이 산별노조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와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하는지 교재를 참고해서 본인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가며 적시오. 2) 산별노조체제에서 전국총연합조직, 산별중앙조직, 지역조직, 현장조직은 어떤 위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요약하시오 3) 기업별노조가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산별노조기 관료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이유와 대책을 적시오.
산별노조 건설 -나라별 사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일 산별노조의 조직현대화, 스웨덴 산별노조들의 통합 움직임은 왜 일어나는지 정리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적시오. 2) 산별노조 건설의 배경과 장애요인을 정리하시오. 3) 일본은 왜 산별노조 건설에 실패했는지 네 가지로 나누어 적고,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산별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별 노조 활동이 왜 어렵고 산별노조를 건설해야하는지 풍부하게 적시오. 2) 산별노조를 추진할 중심세력을 금속3조직, 통합연맹 구성, 간부들의 결단, 현장 조직 구축으로 나누어 적시오. 3)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서는 공동요구에 기초한 공동투쟁·통일투쟁이 왜 필요한가? 공동요구는 어떻게 짚는 게 좋은가? 공동교섭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정리하시오
금속연맹 -현황과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96년 창립원년 금속연맹의 사업을 평가한다면 ? 2) 5년안에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1997년 연맹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3) 1997년 입단투 공동요구는 어떤 것이 좋을지 정리하고 그 이유도 덧붙이시오.
산별 시대 -간부의 자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별 노조에서 간부 활동은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는지 교재와 자신의 경험을 적시오. 2) 강의에서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자신이 서지 않을 때'는 대중적 활동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대중적 활동방식은 무엇인지 ? 3) 연맹 중앙과 단위 노조의 결합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정리하시오.

서도 기회의 균등성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특히 '노동교실'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중소기업에서 진행하려고 하면 강사 초청의 문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정과 인력 때문에 실제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 현실의 모습이었다. '21세기 산별노조시대를 앞당깁니다'라는 민주금속연맹의 구호처럼 기업별 단위로 진행되었던 교육을 연맹으로 모아내고 일회적인 노동교육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금속노동자학교'의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진행된 체계적 교육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육생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이번 노동교실이 다른 교육 단체나 단위사업장에서 진행하였던 교육과 비교하여 '교재와 강사' 등 준비내용이 풍부했으며, 노동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기 노동교실의 위와 같은 장점과 함께 교육운영에 있어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교육생의 평가에서 제기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노동교실 운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자. 우선 지적되는 것은 교육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강의식 교육을 보완하는 매체의 필요성과 토론방식의 도입", "2시간 내외의 강의와 질문식 교육 방법은 상당한 수준의 간부에게는 따라가기에 벅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체계적인 주제와 내용의 전달이라는 목표에 따라 노동교실은 강사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주된 교육 방법이었다. 또한 시간의 부족으로 분반토론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계획되었던 수련회도 실시하지 못한 지부가 많았다. 강의 교육이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다수의 대중에게 전달하는 유력한 교육방법으로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의 주의력은 대개 15분 정도 지속되며, 또한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청각만을 사용하는 경우 정보의 20% 정도만을 기억하는 데 반해, 시청각 및 토론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약 70%를 기억한다는 연구결과와는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단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1주일에 2번씩 그것도 현장 근무를 마치고 저녁시간에 실시되는 교육 조건의 한계가 있지만 주제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참여식 교육방법으로 몇몇 연맹에서 시도되고 있는 "반반토론, 게시판세미나" 등을 주제에 따라 재조정하여 시도해보고 강의식 교육생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차트, 슬라이드, OHP 등은 작은 준비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속연맹의 1기 노동교실은 기업 단위의 교육 형태를 뛰어넘는 첫 시도로서 향후 노동교육의 몇가지 실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금속연맹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주노조 진영이 함께 풀어나갈 숙제이기도 하다. 우선 노동교육의 체계화의 문제이다.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교육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기업별 노조에 따른 집행부의 잦은 교체로 노조의 교육 내용이 노동운동 일

반'이나 '당면 상황의 요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은 무차별적인 대상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전달되어 왔다. 금속연맹의 노동교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체계화의 첫 출발점으로 판단된다. 1기 노동교실 졸업생들은 향후 중급, 고급과정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노동교육의 체계화의 열쇠는 단위사업장-연맹-중앙조직이라는 조직체계와 내용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함으로써 각 조직의 교육 위상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단위 사업장의 노동교육을 잘하는 방안은 혼자 힘의 힘이라 힘을 합할 수 있는 동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구현 될 수 있다.

한편 노동교실의 평가 과정에서도 제기되는 향후 노동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문제이다. 그 동안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우리는 노동교육하면 몇 개의 주제와 명망성있는 강사의 배치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관성에 빠져왔다. 노동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많은 강의가 진정으로 노동자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왔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교육은 노동과 생활 그리고 투쟁속에서 일상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노동자의 의식을 갖도록 북돋우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연맹 주관하에 처음으로 실시 된 제1기 노동교실은 향후 "금속노동자학교"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노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금속연맹 동지들의 힘찬 전진을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